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1년 8월호

Contents

| | |
|--------------------------|----|
| 〈통계 요약〉 | 1 |
| I. 일본 무역 동향 | |
| 1. 한일 무역 동향 | 2 |
|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5 |
|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 |
|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9 |
|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10 |
| III. 일본 인적교류 동향 | |
|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13 |
|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15 |
|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 |
|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18 |
|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23 |
|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26 |



〈통계 요약〉

한일 무역의 2021년 7월 상황

| | 수출(백만\$, %) | | 수입(백만\$, %) | | 수지(백만\$) |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 한국 전체 | 55,434 | 29.6 | 53,662 | 38.1 | 1,772 |
| 일본 부분 | 2,558 | 27.9 | 4,534 | 17.4 | -1,976 |
| 일본 비중 | 4.6 | | 8.4 | |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7월 상황

| | 2020년 7월 | 2021년 7월 | 증감률 |
|------------|-----------|-----------|------|
| 수출(백만¥, %) | 5,368,018 | 7,356,045 | 37.0 |
| 수입(백만¥, %) | 5,382,781 | 6,916,614 | 28.5 |
| 수지(백만¥, %) | -14,763 | 439,431 | -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8월 27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 2021년 4월 | | 2021년 5월 | | 2021년 6월 | |
|-----------|-----------------|-----------------|-----------------|-----------------|-----------------|-----------------|
| | 대외직접투자 (Net) | 대내직접투자 (Net) | 대외직접투자 (Net) | 대내직접투자 (Net) | 대외직접투자 (Net) | 대내직접투자 (Net) |
| 전체(억¥) | 19,683 | -3,761 | 11,348 | 348 | 6,881 | 7,509 |
| 한국 부분(억¥) | 128 | -105 | 128 | 18 | 173 | 200 |
| 한국 비중(%) | 0.7 | 2.8 | 1.1 | 5.2 | 2.5 | 2.7 |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6월 8일, 7월 8일, 8월 10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7월 상황

| 한국방문 외국인 (명, %) | | |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 | | |
|-----------------|---------|---------|------|-----------------|---------|---------|--------|
| | 2020년7월 | 2021년7월 | 증감률 | | 2020년7월 | 2021년7월 | 증감률 |
| 전체(교포 포함) | 61,012 | 83,005 | 36.0 | 전체 | 3,782 | 51,100 | 1251.1 |
| 방한 일본인 | 755 | 881 | 16.7 | 방일 한국인 | 294 | 1,800 | 512.2 |
| 일본인 비중 | 1.24 | 1.06 | | 한국인 비중 | 7.77 | 3.52 | |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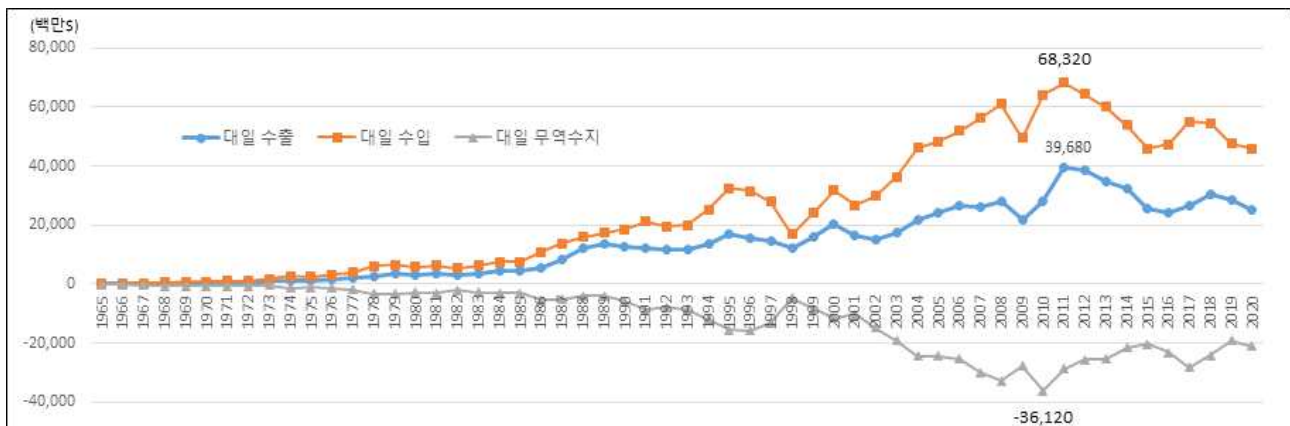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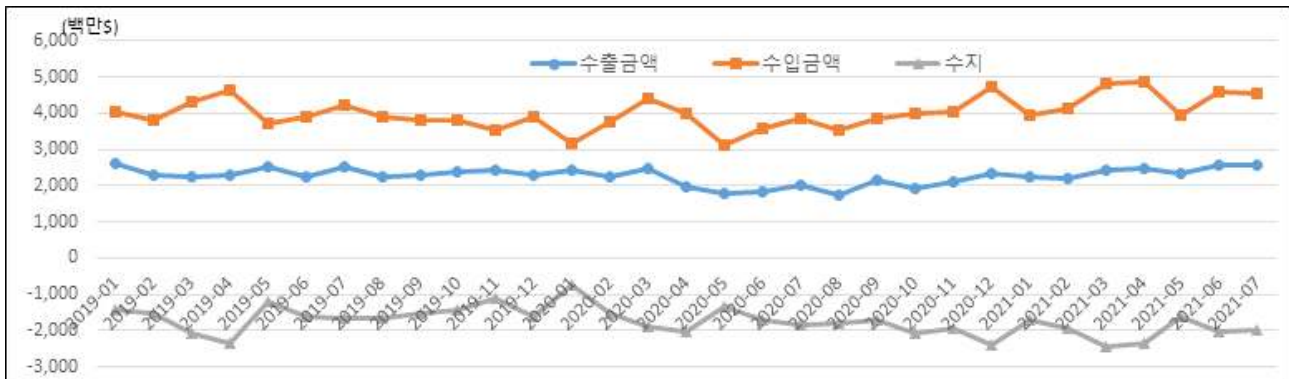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 이후 통계에서 한 해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20년에는 대일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수출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커서 대일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7월에는 수출 수입 무역적자 모두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대일 수출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7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대일 수입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7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5월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또는 정체를 보이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7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한일 무역의 2021년 7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1년 7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일(對日)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7.9% 증가하였고, 대일 수입은 동(同) 17.4%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1년 7월 상황

| | 수출(백만\$, %) | | 수입(백만\$, %) | | 수지(백만\$) |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 한국 전체 | 55,434 | 29.6 | 53,662 | 38.1 | 1,772 |
| 일본 부분 | 2,558 | 27.9 | 4,534 | 17.4 | -1,976 |
| 일본 비중 | 4.6 | | 8.4 | |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1년 7월에 한국전체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9.6% 증가하였고, 대일 수출은 동(同) 27.9% 증가하여 25.6억 달러가 되었음
- 2021년 7월에 한국전체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38.1% 증가하였고, 대일 수입은 동(同) 17.4% 증가하여 45.3억 달러가 되었음

- 한국 전체 무역수지는 17.7억 달러 흑자였으나, 대일 무역수지는 19.8억 달러 적자였음
-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6%였고, 수입 경우는 8.4%였음

- <표2> 및 <표3>은 2021년 7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각각 8개 품목이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였음

<표2> 한국의 2021년 7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 순 위 | 품목명 | 2020년 7월(백만\$, %) | | | 2021년 7월(백만\$, %) | | |
|--------|-----------|-------------------|-------|--------|-------------------|-------|--------|
| | | 수출금액 | 증감률 | 수지금액 | 수출금액 | 증감률 | 수지금액 |
| | 총계 | 1,999 | -21.5 | -1,863 | 2,558 | 27.9 | -1,976 |
| 1 | 광물성연료 | 242 | -43.0 | 220 | 434 | 79.6 | 359 |
| 2 | 철강제품 | 242 | -34.4 | -115 | 308 | 27.5 | -380 |
| 3 | 정밀화학제품 | 194 | 13.4 | -161 | 191 | -1.7 | -173 |
| 4 | 전자부품 | 118 | -21.1 | -592 | 173 | 46.8 | -505 |
| 5 | 석유화학제품 | 82 | -36.4 | -107 | 171 | 107.3 | -94 |
| 6 | 금속광물 | 115 | 68.6 | 58 | 168 | 46.4 | 105 |
| 7 | 산업용전자제품 | 124 | 24.4 | -112 | 123 | -1.0 | -104 |
| 8 | 농산물 | 98 | -11.4 | 77 | 100 | 2.2 | 79 |
| 9 | 기계요소공구및금형 | 68 | -32.3 | -47 | 78 | 15.8 | -44 |
| 10 | 기초산업기계 | 71 | -20.0 | -127 | 73 | 3.1 | -135 |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1년 7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 순 위 | 품목명 | 2020년 7월(백만\$, %) | | | 2021년 7월(백만\$, %) | | |
|--------|---------|-------------------|-------|--------|-------------------|------|--------|
| | | 수입금액 | 증감률 | 수지금액 | 수입금액 | 증감률 | 수지금액 |
| | 총계 | 3,862 | -8.1 | -1,863 | 4,534 | 17.4 | -1,976 |
| 1 | 철강제품 | 356 | -33.9 | -115 | 688 | 93.5 | -380 |
| 2 | 전자부품 | 709 | 27.9 | -592 | 678 | -4.4 | -505 |
| 3 | 정밀기계 | 445 | 51.2 | -401 | 480 | 7.9 | -418 |
| 4 | 정밀화학제품 | 355 | -14.7 | -161 | 364 | 2.5 | -173 |
| 5 | 석유화학제품 | 189 | -37.2 | -107 | 265 | 40.0 | -94 |
| 6 | 산업용전자제품 | 236 | -9.7 | -112 | 227 | -3.5 | -104 |
| 7 | 수송기계 | 152 | -35.7 | -97 | 213 | 39.8 | -148 |
| 8 | 기초산업기계 | 197 | -1.6 | -127 | 208 | 5.2 | -135 |
| 9 | 플라스틱제품 | 206 | 0.6 | -140 | 207 | 0.8 | -140 |
| 10 | 산업기계 | 150 | -22.2 | -89 | 160 | 6.6 | -87 |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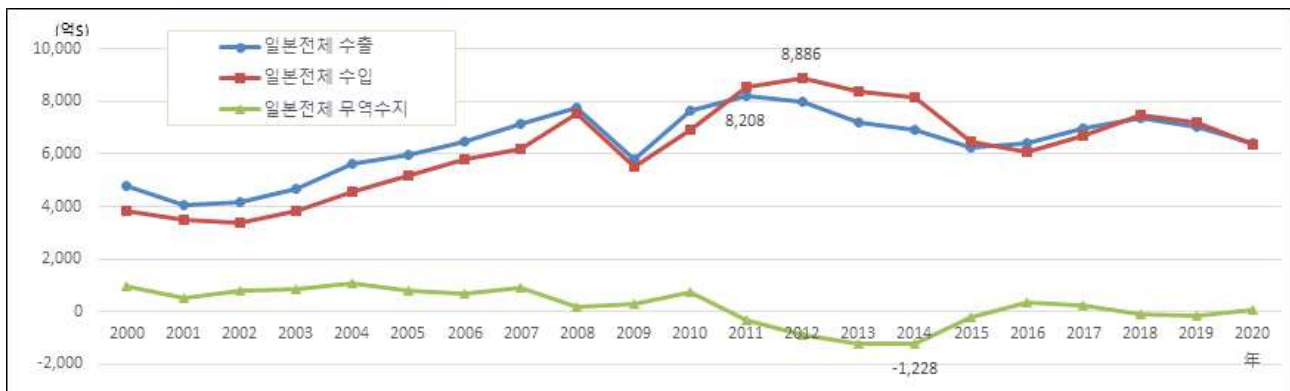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석유화학제품(107.3%), 광물성연료(79.6%) 등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정밀화학제품(-1.7%), 산업용전자제품(-1.0%) 2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철강(93.5%), 석유화학제품(40.0%) 등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전자부품(-4.4%), 산업용전자제품(-3.5%) 2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3>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2016년과 2017년 흑자, 2018년과 2019년 적자를 보인 후 2020년에 흑자로 전환함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수지는 151억 달러 적자였음
- 2020년 일본전체 수출은 6,400억 달러, 수입은 6,341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무역수지는 59억 달러 흑자였음

□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7월 상황

- <표4>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7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무역수지 경우는 전년동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함

<표4>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7월 상황

| | 2020년 7월 | 2021년 7월 | 증감률 |
|------------|-----------|-----------|------|
| 수출(백만¥, %) | 5,368,018 | 7,356,045 | 37.0 |
| 수입(백만¥, %) | 5,382,781 | 6,916,614 | 28.5 |
| 수지(백만¥, %) | -14,763 | 439,431 | -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8월 27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자동차, 철강, 자동차부분품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7.0% 증가하여 7조 3,560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철광석, 비철금속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8.5% 증가하여 6조 9,166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148억 엔 적자에서 4,394억 엔 흑자로 전환됨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7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7.2%, 수입의 49.0%를 차지하였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수지는 8,192억 엔 흑자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1.5%, 수입의 23.7%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572억 엔이었음
 - 홍콩은 수출의 4.6%, 수입의 0.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홍콩 무역흑자는 3,282억 엔이었음
 - 대만은 수출의 7.3%, 수입의 4.6%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2,169억 엔이었음
 - 한국은 수출의 6.3%, 수입의 4.4%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흑자는 1,611억 엔이었음
 - 미국은 수출의 18.8%, 수입의 10.5%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6,594억 엔이었음
 - 서유럽 전체에 대해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독일은 수출의 2.5%, 수입의 2.8%를 차지하였음
 - 영국은 수출의 1.2%, 수입의 1.0%를 차지하였음

〈표5〉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7월 지역별 상황

| | 수출(백만¥, %) | | | 수입(백만¥, %) | | | 수지(백만¥, %) | |
|--------------------|------------------|--------------|--------------|------------------|--------------|--------------|-----------------|--------------|
| | 수출금액 | 구성비 | 증감률 | 수입금액 | 구성비 | 증감률 | 수지금액 | 증감률 |
| 총액 | 7,356,045 | 100.0 | 37.0 | 6,916,614 | 100.0 | 28.5 | 439,431 | - |
| 아시아 | 4,207,521 | 57.2 | 32.5 | 3,388,315 | 49.0 | 19.1 | 819,206 | 146.4 |
| 중국 | 1,580,636 | 21.5 | 18.9 | 1,637,838 | 23.7 | 12.4 | -57,202 | -55.4 |
| 홍콩 | 337,626 | 4.6 | 18.5 | 9,460 | 0.1 | 40.1 | 328,166 | 17.9 |
| 대만 | 538,143 | 7.3 | 39.9 | 321,283 | 4.6 | 36.4 | 216,860 | 45.5 |
| 대한민국 | 466,085 | 6.3 | 24.5 | 305,031 | 4.4 | 40.2 | 161,054 | 2.8 |
| 싱가포르 | 199,075 | 2.7 | 35.5 | 88,257 | 1.3 | -0.3 | 110,818 | 89.6 |
| 태국 | 347,743 | 4.7 | 99.5 | 240,570 | 3.5 | 25.7 | 107,173 | - |
| 말레이시아 | 130,005 | 1.8 | 30.3 | 169,217 | 2.4 | 20.5 | -39,212 | -3.5 |
| 인도네시아 | 128,002 | 1.7 | 133.3 | 176,305 | 2.5 | 32.2 | -48,303 | -38.5 |
| 필리핀 | 109,173 | 1.5 | 44.8 | 107,807 | 1.6 | 19.8 | 1,366 | - |
| 베트남 | 191,386 | 2.6 | 29.2 | 224,988 | 3.3 | 17.9 | -33,602 | -21.3 |
| 인도 | 112,855 | 1.5 | 72.8 | 50,542 | 0.7 | 18.5 | 62,313 | 175.2 |
| 대양주 | 220,084 | 3.0 | 78.8 | 519,406 | 7.5 | 39.5 | -299,322 | 20.1 |
| 호주 | 181,518 | 2.5 | 75.6 | 459,356 | 6.6 | 41.6 | -277,838 | 25.6 |
| 뉴질랜드 | 29,988 | 0.4 | 128.1 | 28,680 | 0.4 | 23.1 | 1,308 | - |
| 북미 | 1,461,654 | 19.9 | 28.1 | 849,486 | 12.3 | 27.5 | 612,168 | 28.9 |
| 미국 | 1,383,854 | 18.8 | 26.8 | 724,472 | 10.5 | 24.5 | 659,382 | 29.4 |
| 캐나다 | 77,800 | 1.1 | 55.7 | 124,347 | 1.8 | 48.4 | -46,547 | 37.6 |
| 중남미 | 289,859 | 3.9 | 125.7 | 317,240 | 4.6 | 43.7 | -27,381 | -70.4 |
| 서유럽 | 726,268 | 9.9 | 34.5 | 856,162 | 12.4 | 14.2 | -129,894 | -38.2 |
| 독일 | 183,828 | 2.5 | 35.9 | 192,446 | 2.8 | -0.6 | -8,618 | -85.2 |
| 영국 | 91,116 | 1.2 | 22.0 | 68,424 | 1.0 | 36.5 | 22,692 | -7.7 |
| 프랑스 | 66,208 | 0.9 | 48.0 | 78,603 | 1.1 | 0.7 | -12,395 | -62.8 |
| 네덜란드 | 110,854 | 1.5 | 50.7 | 28,276 | 0.4 | 26.2 | 82,578 | 61.5 |
| 이탈리아 | 41,366 | 0.6 | 33.4 | 102,340 | 1.5 | -5.1 | -60,974 | -20.6 |
|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 175,815 | 2.4 | 67.2 | 196,825 | 2.8 | 46.1 | -21,010 | -29.0 |
| 중동 | 194,938 | 2.7 | 81.8 | 663,030 | 9.6 | 104.6 | -468,092 | 115.9 |
| 아프리카 | 79,906 | 1.1 | 71.0 | 126,145 | 1.8 | 77.6 | -46,239 | 90.1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8월 27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7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수입 양쪽에서 모든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는 광물성연료(133.2%), 원료별제품(55.1%) 등 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수송용기기(9.0%), 일반기계(7.0%), 전기기기(6.0%)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광물성연료(79.6%), 원료품(63.3%) 등 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광물성연료(11.1%), 원료품(4.4%), 전기기기(3.7%)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6>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7월 품목별 상황

| | 수출(백만¥, %) | | | | 수입(백만¥, %) | | | |
|---------|------------|-------|-------|-------|------------|-------|------|-------|
| | 수출금액 | 구성비 | 증감률 | 증감기여도 | 수입금액 | 구성비 | 증감률 | 증감기여도 |
| 총액 | 7,356,045 | 100.0 | 37.0 | 37.0 | 6,916,614 | 100.0 | 28.5 | 28.5 |
| 1 식료품 | 82,480 | 1.1 | 25.6 | 0.3 | 625,583 | 9.0 | 10.3 | 1.1 |
| 2 원료품 | 115,353 | 1.6 | 50.4 | 0.7 | 610,626 | 8.8 | 63.3 | 4.4 |
| 3 광물성연료 | 83,393 | 1.1 | 133.2 | 0.9 | 1,342,356 | 19.4 | 79.6 | 11.1 |
| 4 화학제품 | 877,829 | 11.9 | 33.1 | 4.1 | 813,756 | 11.8 | 21.9 | 2.7 |
| 5 원료별제품 | 879,165 | 12.0 | 55.1 | 5.8 | 687,269 | 9.9 | 31.8 | 3.1 |
| 6 일반기계 | 1,416,964 | 19.3 | 35.8 | 7.0 | 643,283 | 9.3 | 6.5 | 0.7 |
| 7 전기기기 | 1,358,733 | 18.5 | 30.9 | 6.0 | 1,108,641 | 16.0 | 21.6 | 3.7 |
| 8 수송용기기 | 1,566,964 | 21.3 | 44.8 | 9.0 | 214,563 | 3.1 | 34.1 | 1.0 |
| 9 기타 | 975,164 | 13.3 | 21.9 | 3.3 | 870,538 | 12.6 | 5.1 | 0.8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8월 27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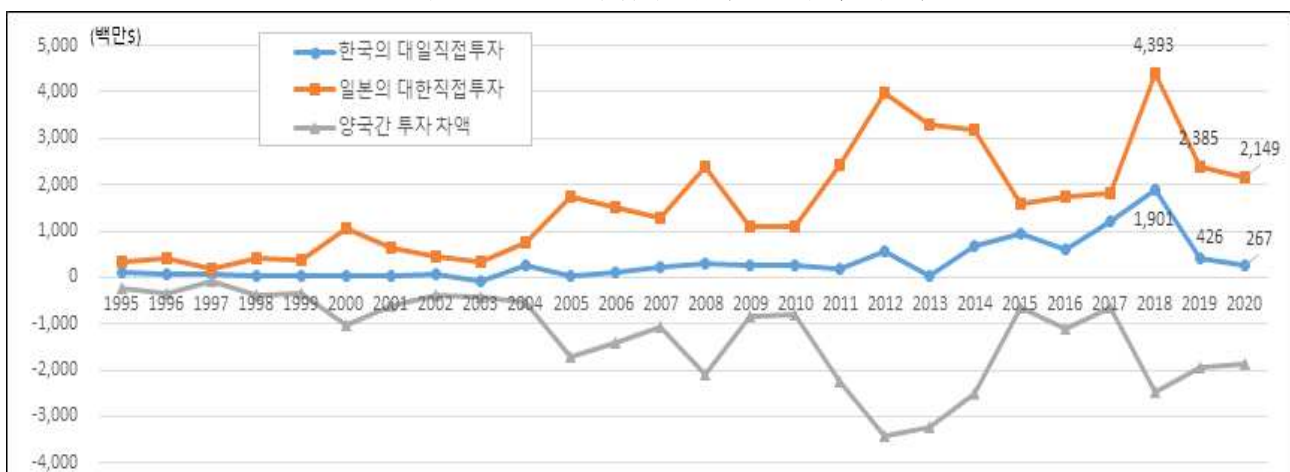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4>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 및 2020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한일간 갈등 및 COVID-19가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20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2.67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659.77억 달러의 0.41%를 차지하였음
- 2020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21.49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1,711.23억 달러의 1.26%를 차지하였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7>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 2021년 4월 | | 2021년 5월 | | 2021년 6월 | |
|-----------|-----------------|-----------------|-----------------|-----------------|-----------------|-----------------|
| | 대외직접투자 (Net) | 대내직접투자 (Net) | 대외직접투자 (Net) | 대내직접투자 (Net) | 대외직접투자 (Net) | 대내직접투자 (Net) |
| 일본 전체(억¥) | 19,683 | -3,761 | 11,348 | 348 | 6,881 | 7,509 |
| 한국 부분(억¥) | 128 | -105 | 128 | 18 | 173 | 200 |
| 한국 비중(%) | 0.7 | 2.8 | 1.1 | 5.2 | 2.5 | 2.7 |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6월 8일, 7월 8일, 8월 10일)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5월 11,348억 엔(실행 35,494; 회수 24,147)에서 6월 6,881억 엔(실행 40,442; 회수 33,561)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5월 128억 엔(실행 171; 회수 43)에서 6월 173억 엔(실행 197; 회수 24)으로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에서 2.5%로 증가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5월 348억 엔(실행 25,030; 회수 24,682)에서 6월 7,509억 엔(실행 39,292; 회수 31,783)으로 증가하였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1년 5월 18억 엔(실행 22; 회수 3)에서 6월 200억 엔(실행 224; 회수 24)으로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2%에서 2.7%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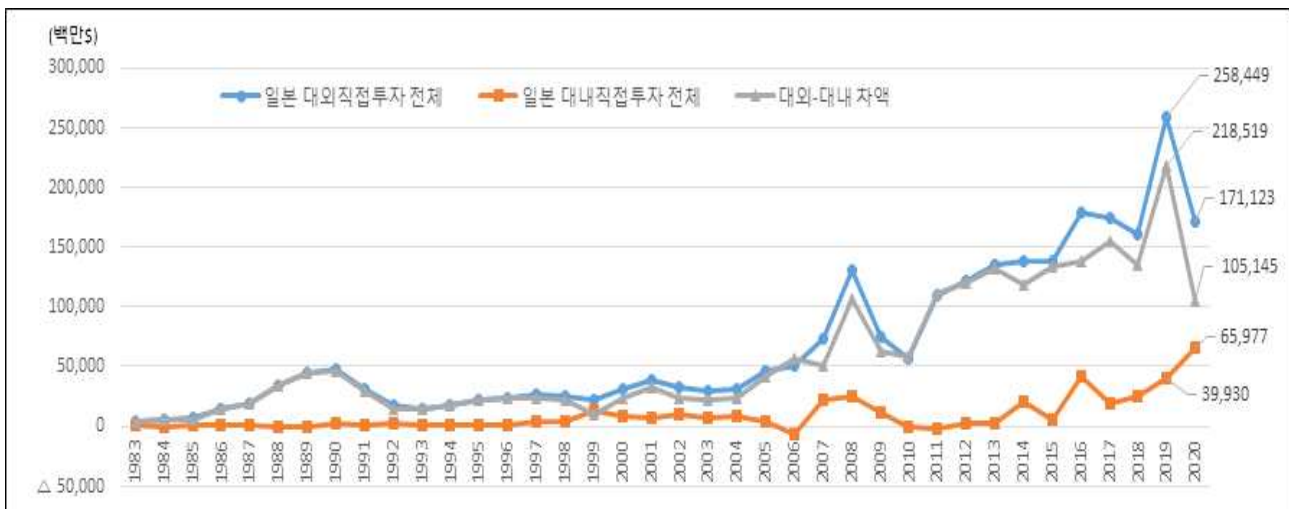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584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99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85억 달러에 달했음
- 한편 2020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1,711억 달러로 되었지만, 대내 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상최대인 660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1,051억 달러로 되었음
- 2020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59억 달러 흑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 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그림5〉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8>은 2021년 6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외직접투자는 6,881억 엔이었으며, 대내직접투자는 7,509억 엔이었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6,881억 엔(실행 40,442; 회수 33,561)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는 지역별로 아시아(58.0%)와 유럽(24.5%), 중남미(16.1%), 대양주(5.5%)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고, 북미 경우는 회수가 실행보다 많아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네덜란드(2,103억 엔), 싱가포르(1,999억 엔), 룩셈부르크(873억 엔) 등에 대한 투자가 많았고, 미국(-383억 엔) 경우에는 순투자가 마이너스였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7,509억 엔(실행 39,292; 회수 31,783)으로 플러스였음
- 대내직접투자는 지역별로 아시아(42.5%)와 유럽(30.8%), 북미(20.1%), 대양주(6.0%) 등 으로부터의 투자가 많았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플러스 순투자가 큰 곳은 홍콩(1,520억 엔), 미국(1,448억 엔), 영국(1,190억 엔) 등이었음

〈표8〉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2021년 6월 상황

| | 대외직접투자(억 엔, %) | | 대내직접투자(억 엔, %) | |
|-------------|----------------|--------------|----------------|--------------|
| | 투자금액(Net) | 구성비 | 투자금액(Net) | 구성비 |
| 합계 | 6,881 | 100.0 | 7,509 | 100.0 |
| 아시아 | 3,994 | 58.0 | 3,195 | 42.5 |
| 중국 | 741 | 10.8 | 783 | 10.4 |
| 홍콩 | 135 | 2.0 | 1,520 | 20.2 |
| 대만 | 19 | 0.3 | 26 | 0.3 |
| 한국 | 173 | 2.5 | 200 | 2.7 |
| 싱가포르 | 1,999 | 29.1 | 733 | 9.8 |
| 태국 | 154 | 2.2 | -70 | -0.9 |
| 인도네시아 | 218 | 3.2 | -6 | -0.1 |
| 말레이시아 | 79 | 1.1 | 4 | 0.1 |
| 필리핀 | 94 | 1.4 | — | — |
| 베트남 | 386 | 5.6 | 1 | 0.0 |
| 인도 | 80 | 1.2 | 2 | 0.0 |
| 북미 | -132 | -1.9 | 1,513 | 20.1 |
| 미국 | -383 | -5.6 | 1,448 | 19.3 |
| 캐나다 | 250 | 3.6 | 65 | 0.9 |
| 중남미 | 1,109 | 16.1 | -79 | -1.1 |
| 멕시코 | 46 | 0.7 | — | — |
| 브라질 | 23 | 0.3 | — | — |
| 케이만제도 | 747 | 10.9 | -144 | -1.9 |
| 대양주 | 378 | 5.5 | 454 | 6.0 |
| 호주 | 370 | 5.4 | -202 | -2.7 |
| 뉴질랜드 | -18 | -0.3 | 2 | 0.0 |
| 유럽 | 1,687 | 24.5 | 2,315 | 30.8 |
| 독일 | 16 | 0.2 | 224 | 3.0 |
| 영국 | 300 | 4.4 | 1,190 | 15.8 |
| 프랑스 | 388 | 5.6 | 147 | 2.0 |
| 네덜란드 | 2,103 | 30.6 | 229 | 3.0 |
| 이탈리아 | 73 | 1.1 | 49 | 0.7 |
| 벨기에 | -667 | -9.7 | 228 | 3.0 |
| 룩셈부르크 | 873 | 12.7 | 62 | 0.8 |
| 스위스 | -1,372 | -19.9 | 452 | 6.0 |
| 스웨덴 | 68 | 1.0 | -21 | -0.3 |
| 스페인 | -259 | -3.8 | 7 | 0.1 |
| 러시아 | 19 | 0.3 | — | — |
| 중동 | -35 | -0.5 | 1 | 0.0 |
| 아프리카 | -119 | -1.7 | 110 | 1.5 |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8월 10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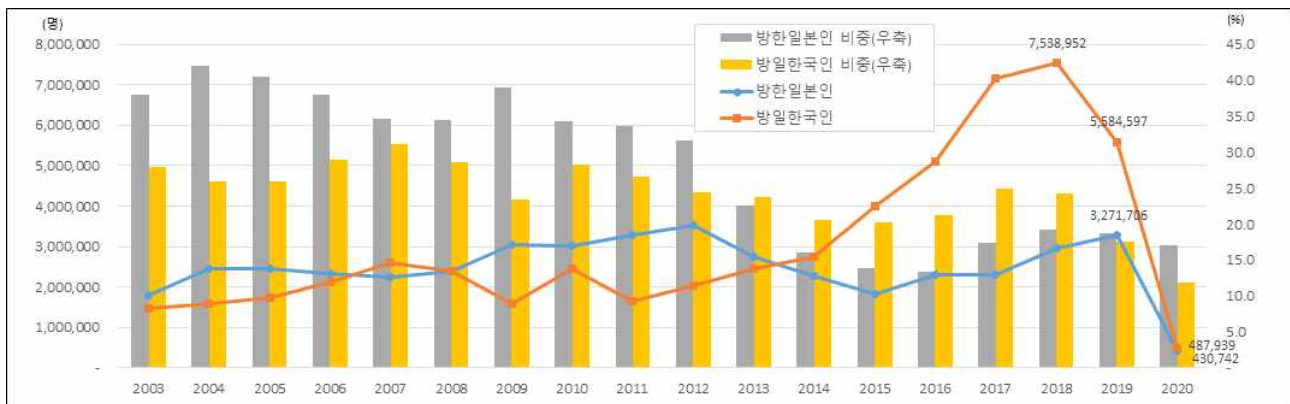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방일한국인 및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급감하였음

<그림6>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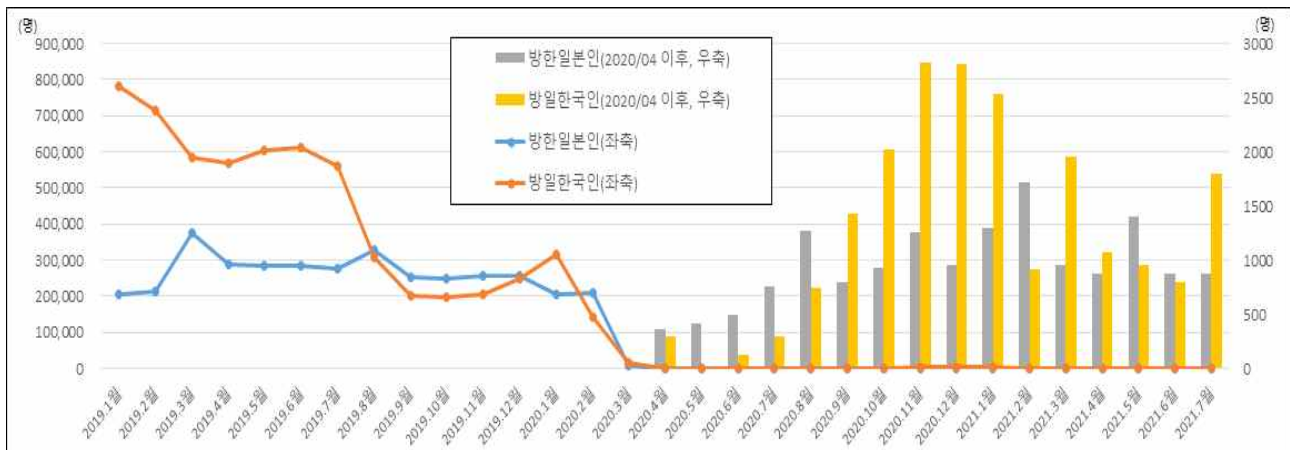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하여 약 327만 명에 달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3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방한외국인 전체 수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한외국인 총수는 약 1,750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252만 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약 75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약 558만 명이 되었고,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9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일외국인 전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방일외국인 총수는 2019년 약 3,188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412만 명)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7>은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7>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월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0년 1월 203,969명, 2월 211,199명, 3월 8,347명, 5월 360명, 5월 413명, 6월 498명, 7월 755명, 8월 1,275명, 9월 794명, 10월 927명, 11월 1,254명, 12월 951명, 2021년 1월 1,299명, 2월 1,719명, 3월 949명, 4월 872명, 5월 1,403명, 6월 875명, 7월 881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감소 그리고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0년 1월 316,812명, 2월 143,896명, 3월 16,669명, 4월 299명, 5월 18명, 6월 122명, 7월 294명, 8월 749명, 9월 1,426명, 10월 2,021명, 11월 2,825명, 12월 2,808명, 2021년 1월 2,535명, 2월 910명, 3월 1,956명, 4월 1,076명, 5월 950명, 6월 800명, 7월 1,800명)

□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7월 상황

- <표9>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7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류인원이 COVID-19로 전년동월대비로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증가하였음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7월 상황

| 한국방문 외국인 (명, %) | | |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 | | |
|-----------------|---------|---------|------|-----------------|---------|---------|--------|
| | 2020년7월 | 2021년7월 | 증감률 | | 2020년7월 | 2021년7월 | 증감률 |
| 전체(교포 포함) | 61,012 | 83,005 | 36.0 | 전체 | 3,782 | 51,100 | 1251.1 |
| 방한 일본인 | 755 | 881 | 16.7 | 방일 한국인 | 294 | 1,800 | 512.2 |
| 일본인 비중 | 1.24 | 1.06 | | 한국인 비중 | 7.77 | 3.52 | |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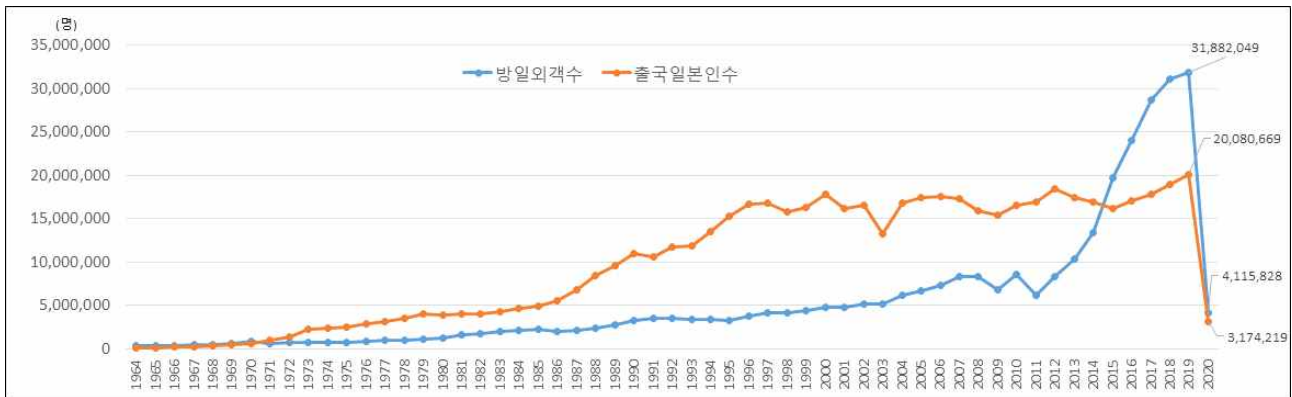
- 2021년 7월 방한외국인(교포 포함) 전체 수는 83,005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0% 증가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88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7% 증가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20년 7월 1.24%에서 2021년 7월 1.06%로 감소하였음
- 2021년 7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도쿄올림픽 개최의 영향으로 51,1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51.1% 증가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1,8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2.2% 증가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20년 7월 7.77%에서 2021년 7월 3.52%로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8>은 일본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964년 이후 1970년까지는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1971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출국일본인수가 방일외객수를 초월하였으나, 2015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해 방일외객수는 2020년에 약 3,188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일본출국자수 약 2,008만 명보다 약 1,180만 명 더 많음
-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인해 방일외객수와 출국일본인수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여 각각 약 412만 명과 약 317만 명으로 됨

〈그림8〉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인적교류의 2021년 7월 상황

- <표10>은 2021년 7월 방일외객수의 국가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수가 COVID-19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로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도쿄올림픽 개최의 영향으로 전체 측면에서도 또 베트남을 제외한 개별 국가 측면에서도 증가하였음
- 2021년 7월 방일외객 전체 수는 51,1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51.1% 증가하였음
- 방일외객 중 한국인 수는 1,800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512.2%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중국인 수는 3,900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396.8%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대만인 수는 600명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488.2%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홍콩인 수는 300명으로 전체의 0.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1478.9%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베트남인 수는 400명으로 전체의 0.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36.8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미국인 수는 6,100명으로 전체의 11.9%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1413.6% 증가한 수치임

〈표 10〉 방일외객수의 2021년 7월 상황

| 국가·지역 | 2020년 7월 | | 2021년 7월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 | 방일외객수(명) | 비중(%) | 방일외객수(명) | 비중(%) | |
| 전체 | 3,782 | 100.0 | 51,100 | 100.0 | 1251.1 |
| 한국 | 294 | 7.8 | 1,800 | 3.5 | 512.2 |
| 중국 | 785 | 20.8 | 3,900 | 7.6 | 396.8 |
| 대만 | 102 | 2.7 | 600 | 1.2 | 488.2 |
| 홍콩 | 19 | 0.5 | 300 | 0.6 | 1478.9 |
| 태국 | 17 | 0.4 | 200 | 0.4 | 1076.5 |
| 싱가포르 | 13 | 0.3 | 200 | 0.4 | 1438.5 |
| 말레이시아 | 6 | 0.2 | 200 | 0.4 | 3233.3 |
| 인도네시아 | 54 | 1.4 | 400 | 0.8 | 640.7 |
| 필리핀 | 51 | 1.3 | 500 | 1.0 | 880.4 |
| 베트남 | 633 | 16.7 | 400 | 0.8 | -36.8 |
| 인도 | 346 | 9.1 | 400 | 0.8 | 15.6 |
| 호주 | 45 | 1.2 | 1,600 | 3.1 | 3455.6 |
| 미국 | 403 | 10.7 | 6,100 | 11.9 | 1413.6 |
| 캐나다 | 30 | 0.8 | 1,500 | 2.9 | 4900.0 |
| 멕시코 | 2 | 0.1 | 500 | 1.0 | 24900.0 |
| 영국 | 55 | 1.5 | 3,400 | 6.7 | 6081.8 |
| 프랑스 | 76 | 2.0 | 2,500 | 4.9 | 3189.5 |
| 독일 | 47 | 1.2 | 2,200 | 4.3 | 4580.9 |
| 이탈리아 | 12 | 0.3 | 1,700 | 3.3 | 14066.7 |
| 러시아 | 10 | 0.3 | 1,200 | 2.3 | 11900.0 |
| 스페인 | 28 | 0.7 | 1,400 | 2.7 | 4900.0 |
| 중동지역 | 26 | 0.7 | 1,000 | 2.0 | 3746.2 |
| 기타 | 728 | 19.2 | 19,100 | 37.4 | 2523.6 |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1년 8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8월 26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 | 2019년 | 2020년 | 2020년 10-12월 | 2021년 1-3월 | 2021년 4-6월 | 2021년 4월 | 2021년 5월 | 2021년 6월 | 2021년 7월 |
|----------------------------------|------------------|------------------|------------------|------------------|------------------|------------------|------------------|------------------|------------------|
|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 0.0 | -4.6 | -1.0 | -1.3 | 7.5 | | | | |
|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 0.5 | -1.9 | -1.6 | -0.5 | 2.1 | 2.7 | 3.1 | 1.1 | |
|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 -5.8 | -9.5 | -0.4 | 5.2 | 22.7 | 20.7 | 23.6 | 23.8 | |
|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 90.5 -4.0 | 81.5 -9.9 | 80.5 -7.0 | 83.0 -1.6 | 87.5 8.1 | 88.3 7.1 | 87.5 9.9 | 86.6 7.3 | |
|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 10.1 | 5.5 | 8.5 | 9.1 | 11.6 | 12.1 | 14.6 | 9.5 | |
|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 -4.3 -1.1 | -11.8 -6.4 | -1.8 -3.2 | 4.6 6.0 | 34.4 P 5.2 | 28.4 1.2 | 38.5 6.9 | 37.2 P 8.2 | P 25.2 P 2.1 |
|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 -3.0 | -10.4 | -3.5 | -1.0 | 19.9 | 15.8 | 21.1 | 23.0 | |
| <법인경상이익-재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 -3.5 | -27.3 | -0.7 | 26.0 | | | | | |
| <도산> 기업도산건수(건) 증감률 | 8,383 1.7 | 7,773 -7.2 | 1,751 -20.8 | 1,554 -28.1 | 1,490 -18.8 | 477 -35.8 | 472 50.3 | 541 -30.6 | 476 -39.6 |
|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 2.4 | 2.8 | 3.0 | 2.8 | 2.9 | 2.8 | 3.0 | 2.9 | |
|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 0.2 0.5 | -1.2 0.0 | -2.1 -0.8 | -0.3 -0.5 | 4.7 -0.8 | 3.8 -0.4 | 5.1 -0.8 | 5.0 -0.5 | P 5.6 -0.3 |
| <금융> 닛케이평균주가(엔) 환율(엔/\$) | 21,697 108.99 | 22,705 106.73 | 25,194 104.49 | 29,001 106.09 | 28,983 109.50 | 29,426 109.13 | 28,517 109.19 | 28,943 110.11 | 28,118 110.29 |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1년 6월, 7월, 8월 등)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서비스 지출을 중심으로 약세 상태로 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와 공급측 통계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6월에 전월대비 2.5% 증가함

- ‘가계조사’ (6월)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대비 3.2% 감소하였고, 판매측 통계인 ‘상업동태통계’ (6월)에서는 소매업판매액이 전월대비 3.1% 증가하였음
 -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보합권대로 움직이고 있고, 한편 소비자 심리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가전판매는 최근 약세 상태임
 - 신차판매대수는 공급 측면의 영향으로 약세 상태임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고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외식은 긴급사태선언 등의 영향으로 인해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개인소비는 최근 서비스지출을 중심으로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감염확대 방지책을 강구해 가는 가운데 회복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기대되지만, 감염 확대에 따른 하향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설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1-3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민간설비투자는 2021년 1-3월기는 전기대비 0.4% 감소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0.5% 증가, 비제조업이 0.9% 감소하였음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투자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6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2021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여전히 과잉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개선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성장분야에 대한 대응 등을 배경으로 기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이 기대됨
- 주택건설은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음
- 자가주택의 착공은 보합상태임
 - 임대주택의 착공은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음
 - 분양주택의 착공은 대체적으로 보합상태임
 - 총 호수는 6월에 전월대비 1.0% 감소하여 연율 86.6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계약률이 70% 전후로 움직이고 있지만 최근 약세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높은 수준으로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하고 있음
 - 6월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대비 1.2% 증가, 7월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대비 11.0% 감소, 6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대비 4.9% 감소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관련 예산의 집행에 따라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완만한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수입은 최근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이고 있고,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대체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수출은 완만한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쪽 수출은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아메리카 쪽 수출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EU 및 기타 지역 쪽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에 관해서는 7월의 방일외객수는 2019년 대비 98.3% 감소하였음
 - 수입은 최근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이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및 아메리카로부터의 수입은 최근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이며, EU로부터의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대체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6월 무역수지는 수입금액 증가로 흑자폭이 축소되었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축소됨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회복되고 있음
 - 광공업생산지수는 6월에 전월대비 6.5% 증가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6월에 전월대비 2.1% 증가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7월은 전월대비 1.1% 감소, 8월은 전월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대체적으로 답보 상태이며, 생산용 기계는 증가하고 있고, 전자부품·디바이스도 증가하고 있음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도체 부족에 따른 영향 및 해외경제의 하향 리스크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으로 비제조업의 일부에서 약세가 남아있지만 회복되고 있으며,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일부에 엄중함이 남아 있지만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도산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 상장기업의 2021년 4-6월기 결산을 보면, 경상이익은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전년대비 이익증가로 나타남

- 기업의 업황 판단에는 일부에 엄중함이 남아 있지만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일본은행 短観(6월 조사)에 따르면 ‘최근’ 업황은 ‘전체규모-전체산업’에서 상승하였고, 9월 시점 업황을 나타내는 ‘향후전망’은 ‘최근’대비 약간 신중한 견해로 나타남
- 도산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6월 541건, 7월 276건으로 나타남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으로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구인 등의 움직임에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6월에 전월대비 0.1% 포인트 하락하여 2.9%로 됨
 - 노동력 인구 및 취업자수는 증가하였고, 완전실업자수는 감소하였음
 - 고용자 수는 최근 보합권내에 있으며, 신규 구인 수 및 유효구인배율도 최근 보합권내에 있으며, 제조업 잔업시간은 회복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현금급여총액은 하계 상여를 포함한 특별 급여는 감소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일본은행 短観(6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부족초과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조정 상황에 따라 약세가 커질 우려도 있기에 감염증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 기업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최근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7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대비 1.1% 상승하였고, 수입물가(엔 기준)는 상승하고 있음
 -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 소비자물가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최근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살펴보면, 7월에는 전월대비 0.6% 포인트 하락하여 79.3%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보합권내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상승-하락-상승 추세를 보였고, 엔/달러 환율은 109엔 대에서 110엔 대로 추이하고 있음
 - 주가는 27,300엔 대에서 28,000엔 대까지 상승한 이후 27,000엔 대까지 하락하였다가 27,700엔 대로 상승함

- 달러대비 엔화의 환율은 109엔 대에서 110엔 대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금리는 -0.01% 대에서 -0.04% 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에서는 여전히 엄중함이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대비 0.5%(7월) 증가하였음
- 머니트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대비 15.4%(7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대비 5.2%(7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1년 7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8월 26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함과 더불어, 결코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COVID-19 감염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고용 확보와 사업 계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켜나가고자 함
- 또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 등에 기반하여 그린, 디지털, 활력 있는 지방 만들기, 저출산 대책 등 네 가지 과제에 중점적인 투자를 실행하여 오랫동안의 과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강인한 성장을 실현함
- COVID-19 감염증에 대해서는 21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을 대상으로 긴급사태조치, 12개 현을 대상으로 만연방지등중점조치를 9월12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고(※이후 연장 등 변경), 계속 의료제공체제의 확보, 감염방지대책의 철저화, 백신접종의 추진, 이 3개를 기동으로 하는 대책을 확실히 추진함
- 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중점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감
- 나아가 성장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대담하게 불러일으키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촉구하여 민간수요 주도의 성장궤도 실현에 연결시킴
- 정부는 2020년도 제3차 보정예산 및 2021년도 예산을 신속하고 적절히 집행함
- 앞으로도 계속 감염상황 및 경제적인 영향을 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예비비의 활용을 통하여 임기응변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감과 더불어 자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주저 없이 기동적인 매크로 경제정책 운영을 실행해 나감
- 일본은행에 있어서는 기업 등의 자금 운용 지원에 최선을 다함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져 있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감염증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실행하여,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함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일본의 COVID-19 관련 동향

- 긴급사태선언 및 만연방지등중점조치 대상 지역 추가
 - 일본 정부는 8월 27일부터는 21개 도도부현에서 긴급사태선언을 적용하고, 12개 현에서는 만연방지등중점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기간은 9월 12일까지임
 - ※ 이후 9월 9일에 긴급사태선언 경우는 미야기현, 오카야마현을 9월 13일자로 만연방지등중점조치로 이동하고, 나머지 19개 도도부현은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함
 - ※ 이후 9월 9일에 만연방지등중점조치 경우는 기존의 도야마현, 야마나시현, 에히메현, 고치현, 사가현, 나가사키현은 9월 12일에 종료하고, 기존의 이시카와현, 후쿠시마현, 구마모토현, 가가와현, 가고시마현, 미야자키현과 9월 13일자로 만연방지등중점조치로 이동한 미야기현, 오카야마현은 9월 30일까지 연장 또는 신규실시하기로 함

| 긴급사태선언 실시기간 (2021년) | 긴급사태선언 실시구역 |
|------------------------|--|
| 5월 23일 ~ 9월 30일 | 오кина와현 |
| 7월 12일 ~ 9월 30일 | 도쿄도 |
| 8월 2일 ~ 9월 30일 | 사이타마현, 치바현, 가나가와현, 오사카부 |
| 8월 20일 ~ 9월 30일 | 이바라기현, 도치기현, 군마현, 시즈오카현, 교토부, 효고현, 후카오카현 |
| 8월 27일 ~ 9월 12일 | 미야기현, 오카야마현 |
| 8월 27일 ~ 9월 30일 | 홋카이도, 기후현, 아이치현, 미에현, 시가현, 히로시마현 |

| 만연방지등중점조치 실시기간 (2021년) | 만연방지등중점조치 실시구역 |
|---------------------------|-------------------|
| 8월 2일 ~ 9월 30일 | 이시카와현 |
| 8월 8일 ~ 9월 30일 | 후쿠시마현, 구마모토현 |
| 8월 20일 ~ 9월 12일 | 도야마현, 야마나시현, 에히메현 |
| 8월 20일 ~ 9월 30일 | 가가와현, 가고시마현 |
| 8월 27일 ~ 9월 12일 | 고치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
| 8월 27일 ~ 9월 30일 | 미야자키현 |
| 9월 13일 ~ 9월 30일 | 미야기현, 오카야마현 |

(출처: 내각관방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홈페이지)

- COVID-19 관련 지원대책 및 경제영향
 - 일본정부는 기존의 COVID-19 관련 지원책의 신청기한을 11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음
 - 지원책에는 긴급사태선언 및 만연방지등중점조치 대상지역에서 영업시간 단축에 응한 기업에게 종업원 1인당 1.5만엔 상한으로 휴업수당 일부를 대신하는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 일시적으로 생활비가 필요하게 된 국민에게 최대 20만 엔을 대출해주는 긴급 소구좌자금 등이 있음

- 긴급사태선언 기한 연장과 대상지역 추가 등으로 인하여 개인소비는 더욱 줄어들게 되었으며, 민간 이코노미스트의 시산에 의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확대될 전망이다
- 스가 총리는 경제단체에 텔레워크 등으로 출근자의 70% 삭감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음
- 요미우리신문의 일본 국내 주요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원격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는 ‘사원끼리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기기나 통신환경의 정비’,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음’의 순으로 나타났음

(출처: 산케이신문, 2021.08.17.; NHK, 2021.08.19., 2021.08.25; 요미우리신문, 2021.08.22.)

□ 일본의 경제 관련 정책

- 희토류 관련기업 외국출자 규제 대상 및 환경기술 개발에 보조금
 - 일본정부는 원자력, 항공, 전력 등 국가 안전이나 기밀 관련 기술을 가진 일본 기업에 외국 기업이 출자할 경우 기술 등에 대한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제 대상에 희토류 관련기업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11월에 규제를 시작할 전망이다
 - 도쿄도는 탈탄소,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등 벤처나 중소기업의 환경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전원별 한계비용 추산
 - 일본 경제산업성이 8월 3일 2030년의 전원별 종합적 발전비용 즉 한계비용을 추산한 결과 사업용 태양광이 1kWh 당 18.9엔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종합적 발전비용(전원별 한계비용) (1kWh당 엔) | |
|------------------------------|------|
| 가스화력 | 11.2 |
| 석탄화력 | 13.9 |
| 원자력 | 14.4 |
| 육상풍력 | 18.5 |
| 사업용태양광 | 18.9 |

(출처: 산케이신문, 2021.08.03.의 표에서 일부 발췌하여 작성)

- 사업용태양광 경우는 날씨나 주야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출력량 조정이 쉬운 화력발전으로 보완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발전 비용은 높게 됨
- 각 전원을 전력시스템에 수용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전원별한계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각국에서 각 전원의 종합적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음

(출처: NHK, 2021.08.21.; 닛케이신문, 2021.08.03., 2021.08.16.; 산케이신문, 2021.08.03.)

- 카본 프라이싱 대처 및 주택에서의 에너지 절약 대처
 - 이산화탄소에 가격을 매겨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카본 프라이싱의 도입과 관련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8월 5일 중간 정리안에 의하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를 매매하는 새로운 시장의 창설이 포함되었음
 - 중간 정리안에 따르면 배출 삭감에 적극적인 기업들을 모은 탐리그(가칭)를 만들고, 참가기업은 2030년 시점의 배출량 목표와 삭감계획을 책정하여 목표를 넘은 삭감량은 국가로부터 크레딧 인정을 받아 매각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크레딧을 구입해 메꾸게 됨
 - 일본정부는 주택 등의 에너지 절약 대책안을 정리하였는데, 2030년 시점에서 신축 주택의 60%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탈탄소 관련 정책
 -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확충할 예정으로 2022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에 335억 엔을 포함시킴
 - 일본의 정부금융기관인 국제협력은행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대출 잔액을 제로로 한다는 목표를 정했으며,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새로운 대출에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을 방침임
 - 일본 경제산업성은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하여 자동차 부품업체가 전동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을 굳혔음
 -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을 위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의 OB 등 전문가를 파견하여 전동차 부품 개발에 조언하고, 인재육성도 지원할 방침임

(출처: 닛케이신문, 2021.08.24.; 아사히신문, 2021.8.06.; NHK, 2021.08.05., 2021.08.10., 2021.08.26.; 산케이신문, 2021.08.05.)

□ 한일 관계

- 징용문제 관련 소송
 - 징용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제철이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한 절차 금지를 요구하는 즉시항고를 했으나 8월 11일 한국법원이 기각하였음
 - 징용관련 한국인 유족들의 미쓰비시머티리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8월 11일 원고측 청구를 기각하였음
 -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징용문제와 관련하여 배상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한국 지방법원이 한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생긴 동사 채권의 압류를 인정하는 명령을 내렸음

- 군마현 다카사키시(群馬県高崎市) 현립공원 ‘군마의숲(群馬の森)’의 조선인노동자 추도비 설치허가 갱신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민단체의 불허가처분 취소 요구 소송의 판결이 기각되었음

(출처: NHK, 2021.08.11., 2021.08.12. 2021.08.19.; 산케이신문, 2021.08.11., 2021.08.26.; 아사히신문, 2021.08.20.)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탈탄소 관련 일본 기업 동향

-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일본 기업들의 대응
 - NHK의 국내 주요 기업 100사에 대한 앙케이트 결과 81사가 탈탄소 사회 실현을 향한 구체적인 목표나 사업 계획을 책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는 ‘탈탄소 기술 혁신 지원’이 74사, ‘친환경의 상품·서비스의 구입을 재촉하는 경제 대책’이 31사 등으로 조사되었음
 - 미쓰비시중공업과 카와사키기선 등이 일본과 호주 사이를 왕복하는 석탄 운반선을 사용하여 화물선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바다 위에서 회수하는 실증 실험을 시작하였음
 - 배의 갑판에 전용장치를 설치하여 항행 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일부를 장치 안의 특수한 액체로 분리·회수하는 구조이며 실증 실험에서는 흔들림이 있는 배 위에서 장치 성능에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함
 - 상선미쓰이는 8월 11일 호주의 오리진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만든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을 공동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 도시바 등 6사는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항공연료 제조를 위해 9월부터 실증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음
- 수소 관련 일본 기업 동향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이와타니산업, 토키코시스템솔루션즈, 타츠노, 수소공급이용기술협회, 일본자동차연구소,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 관민 7사·단체는 2022년 가을에 후쿠시마현 나미에초에 대형 연료전지(FC) 트럭에 수소를 고속 충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시설을 만들 예정임
 - NEDO 등은 2개소의 충전구로부터 충전하는 등의 실험을 추진하며, 충전 속도는 10kg에 1분으로 승용차의 6배를 목표로 함
 - 후쿠오카현은 연료전지(FC) 트럭으로 화물 수송 실증 사업에 나섰는데 현대의 사업자가 참가하여 실제 운송 업무에 활용하며, 냉장 기기의 온도 관리와 가·감속 등

의 실용성, 소음과 진동의 경감 등 쾌적성, CO2 삭감량과 연비 등의 환경·경제성 등을 검증하고 데이터는 도요타자동차와 운송 업체가 공유하고 조기 시판화로 연결해 그 후의 보급에 활용 예정임

- 토요타자동차는 지열 발전을 활용하여 제조된 수소를 현지의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대치를 시작하게 되었음

(출처: NHK, 2021.08.01., 2021.08.08., 2021.08.12.; 닛케이신문, 2021.08.10., 2021.08.11., 2021.08.24.; 산케이신문, 2021.08.23.)

□ 자동차산업과 반도체산업 관련 동향

○ 동남아시아에서의 COVID-19 감염 확대로 인한 자동차기업 영향

- 혼다는 반도체 부족과 동남아시아의 COVID-19 감염 확대 영향으로 올해 판매 계획을 재검토하여 당초 계획보다 줄였음
- 토요타자동차가 발표한 2021년 4월~6월기 결산은 과거 최고를 기록했으나, 2022년 3월기의 실적예상은 상향수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거래처가 많은 동남아시아에서 COVID-19의 감염이 확대되고 있어 부품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등의 영향으로 보임
- 반도체 부족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COVID-19 감염 확대는 일본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

(출처: NHK, 2021.08.04.; 산케이신문, 2021.08.04.; 요미우리신문, 2021.08.20.)

○ 반도체 부족 문제 및 반도체 설비투자

- NHK의 일본 국내 주요 기업 100사 대상의 앙케이트에 의하면 전체의 60%에 가까운 기업들이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인 영향 중 ‘반도체를 사용한 부품의 조달 곤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부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여 자동차 메이커들이 감산이나 공장 가동을 일시정지하는 사태가 되었으며, 정보통신산업에서는 반도체 부족으로 통신영역 확대가 당초 목표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음
- 스미토모화학은 에히메공장에 새로운 제조 라인을 마련해 고순도 황산의 생산 능력을 현재의 2배로 끌어올리고,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에서는 고순도 암모니아수를 40% 증산하여 반도체 수요의 증가에 대응함
- 일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일부 분야의 반도체에서 소니그룹, 미쓰비시전기, 키옥시아 등의 기업들에서 대규모 설비투자에 나서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음

(출처: NHK, 2021.08.21., 2021.08.24.; 닛케이신문, 2021.08.24.)

□ COVID-19에 대한 산업별 대처 방안

- 전일본공수 국내선 10편 LCC이관 및 신칸센 물류수송 실증실험
 - 전일본공수(ANA)는 관광객 이용이 많은 국내선 10편에 대하여 그룹 산하 저가항공사인 피치·아비에이션에 운항을 이관할 방침으로 알려짐
 - 운임이 저렴한 LCC 운항으로 관광 수요를 흡수할 생각으로 이관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항공기는 수요가 왕성한 화물편으로 돌릴 방침임
 - JR큐슈는 8월 24일 신칸센의 미활용 공간을 활용하여 사업자나 개인의 물건을 위탁받아 수송하는 서비스인 ‘화객혼재사업’과 관련하여 하카타-구마모토간 실증실험을 시작했음
 - 하카타-구마모토간 수송은 당분간 실증실험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물건만 수송하며, 일반접수는 가을부터로 계획하고 있음
 - 수송 서비스는 ANA홀딩스가 큐슈 등에서 생산된 채소와 과일을 여객기로 수도권에 수송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등 철도 외의 분야에서도 전개되고 있음
- 시오노기제약 COVID-19약이 연내 100만명분 이상 공급체제를 갖출 방침
 - 시오노기제약은 개발 중인 COVID-19 내복약에 대해 연내 100만명분 이상의 공급체제를 갖출 방침이라고 밝혔음
 - 경증자가 자택에서 복용할 수 있는 약이 실용화되면 의료체제의 압박을 피할 수 있음
 - 시오노기제약의 치료약 후보는 7월에 일본 국내에서 제1단계 임상시험을 시작했으며, 결과에 따라 최종단계의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연내 승인신청도 검토함
- COVID-19 로 인한 텔레워크 확대 및 기업이전
 - 2020년 10월 도쿄 시부야의 수제 맥주 제조업체인 Far Yeast Brewing는 야마나시현 고스게 촌(小菅村)으로 본사를 이전하였는데, 재택근무에도 업무에 차질이 없었던 것이 이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함
 - 차(茶) 기업인 루피시아는 도쿄 본사의 사무실을 축소하고 홋카이도 니세코 마을에 본사 기능을 이전하였는데, 종업원에게는 노트북을 대여하여 원격 근무율이 70%가 되었고, 도쿄·다이칸야마에서 빌리고 있던 6개층 중 4개 층을 해약하였음
 - 제국데이터뱅크에 의하면 2020년 수도권(도쿄, 가나가와, 치바, 사이타마)에 전입한 기업은 296사, 수도권에서 진출한 기업은 288사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으나 여전히 도쿄로 집중되어 있는 문제는 남아 있음
 - 일본생산성본부에 의하면 일본 국내 텔레워크 실시율은 2020년 5월 31.5%였으나, 올해 7월에는 20.4%로 나타났음
 - 업종과 규모에 따라 텔레워크의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며, 텔레워크로 인한 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텔레워크의 확대 및 지속은 곤란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음
(출처: 닛케이신문, 2021.08.06.; 아사히신문, 2021.08.11.; 산케이신문, 2021.08.18., 2021.08.23.)